

충남발전연구,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모색



부여군은 지난 2월 21일 여성문화회관에서 롯데복합테마존의 오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시장과 부여시장이 상업활동 위축과 관련, 지역상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황분석과 낙후된 기반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투자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또한, 부여 도심을 함께 직접 걸어보며 시장을 비롯한 상권 형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시장상인과 관계자 등과의 면담도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퍼실리테이션이란 방식으로 진행된 시장주변 노점 및 전통시장과 연계한 주변상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상인, 소상공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구상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상인들은 충남도에 상업 활성화 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요구하고, 구역이 지정되면 상권관리 기구 설치 및 문화특화거리

조성, 고객 편의시설 등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충청연 임준홍 박사는 상권 활성화구역제도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상권활성화관리기구 설치,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다만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도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지원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도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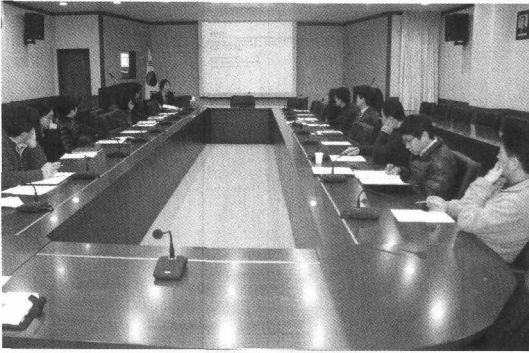
또한, 임 박사는 “부여의 상권활성화구역 검토한 결과, 부여의 경우 2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과 인구가 감소하고 사업체 증가도 침체인 것을 바탕으로 할 때, 부여 도심의 상권활성화구역제도가 활용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충남발전연구, 행복연구회 발족

- 충남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의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행복연구회”를 발족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이에 ‘행복연구회’(연구회장 홍성효,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는 2월 10일 오후3시 연구원 회의실에서 연구회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1차 회의를 갖고 인천발전연구원 조승헌 박



사를 초청, '지역단위에서의 행복지수와 행복정책'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토 함께 진행했다.

연구회는 우선 3월말까지 행복이론 학습과 지표개발을 위한 토론토를 총6회에 걸쳐 추진하는 등 점진적인 행복연구체계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홍성효 연구회장은 "행복연구회는 올해 전략 연구과제(충남 행복지수를 위한 지표설정과 정책개발)와 연관된 기초연구와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상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연구회는 박진도 원장을 비롯한 원내 연구진 8명과 통계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국민 삶의 질 측정 및 분석 전문가를 비롯한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충남발전연구원, '사랑의 연탄 배달' 나눔 실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1월 18일 공주시 관내 영세가정에 연탄 3천장을 전달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연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된 이번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는 충발연의 원우회 설립 5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비록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넉넉한 양은 아니지만,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발연은 농촌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지원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